

계묘년 새해 첫 날 '세쌍둥이 탄생'

광주에서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 날 정시에 세쌍둥이가 출산해 화제다.

김미진(36·곡성군 옥곡면)씨의 자녀인 김서준·서아어·서진. 이 아이들은 1일 새벽 0시 0분 전남대학교병원 수술실에서 출산했다.

세쌍둥이의 어머니인 김씨는 "임신이 어려워 시술관 시술을 받았는데 세 명의 쌍둥이일거라곤 생각도 못했다"며 "조산 위험으로 한 달 이상 전남대병원 산부인과에서 입원했는데 셋 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것도 새해 첫날 태어나게 돼 너무나 행복하고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김씨는 1일 새벽 0시 0분 분만실에서 주치의인 고위협산도·신생아통합치

김미진씨 자녀, 1일 새벽 0시0분 아들 2·딸 1명



료센터 김윤하 센터장의 집도로 제왕절개술을 통해 세쌍둥이를 출산했다. 김씨가 고위협산모인데다 조산진통으로 자궁수축억제제 치료를 받은 상태라 치료 목표 주수인

34주 1일째 분만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각각 1880g, 1900g, 1890g으로 태어났으며 곧바로 인큐베이터를 통해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김윤하 센터장은 "세쌍둥이가 조금 일찍 태어나긴 했지만 건강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라며 "새해 첫 날 처음 태어난 만큼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커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해 5월 시험관시술을 통해 세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양수파열이 의심돼 김윤하 센터장의 진료를 통해 입원 치료를 했으며, 이후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분만일까지 총 49일간 병원에서 지내야 했다.

김씨는 "천연니가 쌍둥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았기에 걱정스럽진 않다"며 "어렵게 임신하고 어렵게 태어난 만큼 다른 것보다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포토뉴스



동구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전남대학교병원 어린이 이집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올해 첫 구정 행보에 나섰다. 이날 일택 청장은 동화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와 '괜찮아 아저씨' 등 두 권의 책을 읽어주며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전했다.

/김도기 기자



광양시지부, 장애인체육회에 기부금 전달 (주)포스코케미칼 광양시지부는 사내 TBM 경진대회에 출전해 우수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 100만 원을 광양시장애인체육회에 전달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장우삼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부임

"교육가족 의견 청취, 교육발전 위한 정책 펼칠 것"

광주시 교육청 신입 부교육감에 장우삼 인천 부교육감이 임명됐다.



시교육청은 장우삼 인천 부교육감이 지난 1일 부임해 본격 업무에 나섰다

장 부교육감은 목포 출신으로 전남대 경영학과 학사,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육학 석사를 마쳤다. 행정고시 37호로 1994년 4월 공직에 입문했으며 부경대 사무국장,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교육과학기술부 사학감사팀장, 인천교육청 부교육감을 역임했다.

장 부교육감은 "공직의 마지막을 고향에서 보낼 수 있게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의 의견을 청취해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광양시-순천대 산학협력단, 위·수탁 계약 체결

광양시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정 방침에 따라 2023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운영회사를 접수해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11월 개소해 지역 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위생·영양 관리와 교육, 급식소 컨설팅, 식단 및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앞으로 2년간 광양시 어린이 대상 단체 급식소 지도·점검·지원을 통해 지역 내 어린이의 균형 있는 성장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광양·조순의 기자

BTS 제이홉, 나고 자란 북구에 고향사랑기부금 전한다

시행 원년 고향사랑기부제 '봄업' 기대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정호석)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 나고 자란 광주 북구에 힘을 보탠다.

2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 일곡동에서 나고 자란 BTS 멤버 제이홉이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의사를 전했다.

전날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부금은 자신이 사는 주소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제이홉은 학창 시절 북구 일곡동에 살며 서일초등학교·일곡중학교·국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의 부모도 여전히 일곡동에 거주하고 있

다. 제이홉은 지난 2015년 BTS 앨범 '화양연화 pt.2'에 수록된 노래 '마시티(Ma City)'에 고향 사랑을 담기도 했다. 그가 가사 작업에 참여한 곡으로 "나 전라남도 광주 베이비(baby)" 등의 노랫말이 담겼다.

BTS 제이홉의 팬들도 지난 2019년부터 수년째 북구에 취약계층 기부 물품을 전한 바 있다.

북구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제이홉이 귀국하면 기부금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부금 전달식 계획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지만, 제이홉의 '선한 영향력'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북구 문흥동에서 자란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등 지역 출신



'빅 클러스 뉴 이어스 로킹 이브 위드 라이언 시크레스트' 무대에 오른 방탄소년단 제이홉.

각계 각층 스타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주성호 기자

정문수 목포해수청장 취임 "지역경제 활성화 최선"

목포 지방해양수산청 제30대 청장으로 정문수 전 세월호추진단 기획총괄과장이 취임했다. 정 청장은 2일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향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용호 무안소방서장 취임 "안전·행복 무안 만들 것"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날인 1일 제5대 무안소방서장에 김용호(소방정) 서장이 취임했다. 전북 임실이 고향인 김용호 서장은 1995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돼 여수소방서장, 화순소방서장, 전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김용호 서장은 "현장에 강하고 군민이 감동하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하고 행복한 무안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박태연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전남 1호'...해남 출신 박광온 국회의원

박광온 의원 등 10명 지난 1일 전남도에 기부금 기탁

전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날인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경기 수원·정)을 비롯해 10명의 기부자가 전남도에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해남 출신인 박광온 의원은 전남도 제1호 기부자로 전남도뿐 아니라 출신지역인 해남군에도 기부를 실천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날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해 아직 이 제

도에 낮설어하는 기부 희망자에게 고향사랑의 마음을 손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줬다.

박관식 전남도 자치행정 국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고향을 떠나 타 지역 거주 향우들과, 향우가 아님더라도 전남을 응원하고 있는 많은 국민의 적극적인 기부를 기대한다"며 "전남도에선 기부자가 자



박광온 의원

심을 갖도록 기부금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광역과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박종배 기자

반려동물 수제간식 원데이클래스 '인기'

동구 성평등마을 LOVE '펫'... "반려동물과 공존 문화 기여"



반려인구가 급증하고 반려동물 먹거리를 직접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수제간식 하루 수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LOVE '펫'은 광주시 동구 성평등마을 사업도 12월 반려동물을 위한 △화과자 △보틀케이크 △김밥 △크리스마스 케이크 등 수제간식 수업을 동구 여성 희망작소에서 진행했다.

수제간식 수업은 모집과 동시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과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세희(봉송이네 대표) 반려동물 수제간식 전문가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주민들은 생명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다"며 "이번 기회를 살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순천교육청 '국가 정원 현충탑' 참배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순천교육' 기원하며 힘찬 시작



순천교육지원청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8시 30분에 순천만국가정원에 조성된 현충탑을 찾아가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현충 참배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임종윤 교육장을 비롯해 순천교육지원청 각 과 과장 및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임종윤 순천교육장은 "우리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것은,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그 희생정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더 일차게 성장하는 탄탄한 순천교육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교육 대전환, 모두 함께 여는 순천교육의 미래를 위해, 2023년 한해에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책무성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순천시 해룡면 신대운영회, 떡국나눔

신대지구 옥녀봉 해맞이 행사 후 떡국 무료나눔 봉사



순천시 해룡면 자생단체인 신대운영회가 지난 1일 떡국 무료나눔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2023년 계묘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신대운영회 회원 50여 명은 신대지구 옥녀봉에서 2023년 첫해를 주민들과 함께 맞이했다. 이후 신대운영회 회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해맞이에 참여한 주민들과 식당에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떡국을 나누며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다.

박귀섭 회장은 "2023년 계묘년 한

해 모든 시민들이 소망하는 일을 성취하기를 기원한다"며 "신대운영회는 앞으로도 더 나은 신대지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사회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대운영회는 지난 2021년 7월 설립한 이후 공인 우편지역 순찰활동, 지역 현안사업 대안제시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신대지구 발전을 위해 5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순천·조순의 기자